



벤처기업 인사·노무관리(11)

벤처기업은 주5일 근무제가 불가능한가?

글 / 김운희 (공인노무사)

중

소기업진흥공단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및 해소방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이 주5일 근무제 도입시 당면할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60.8%)로 나타났다.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2002년 현재 월 169시간의 정상 근로시간을 기록하여 주40시간의 정상근로에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규모 사업체의 경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장시간의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해 시간의 근로수당에 대한 부담(주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인건비의 증가로 인해 그만큼 경쟁력이 하락될 개연성이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은 주5일제가 시행될 경우 인건비 등 제비용이 19.8% 증가하고, 제품가격은 15.8% 상승해 국제경쟁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득실

2004년 7월 1일부로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된 것이 현실이며, 이런 상대적 근로조건의 차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상 실근로시간이 길고, 초과근로의 비중이 높으며, OEM작업방식에 따른 납기촉박 등으로 인해 업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주40시간의 도입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해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도 삶의 질 향상 다음으로 노동생산성 향

상 부분이라고 응답한 바도 있다. 아울러 일부 견해에 의하면 임금상승 압력과 생산차질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기업이 생산성 향상에 실패할 경우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지만, 생산성 향상에 성공한다면 우리 경제가 한단계 고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할 정도다.

지식기반체제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노동비용과 초과근로시간에 의존하던 산업과 직종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여가 및 여가관련 산업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업종과 직종 등 개인이 속한 상황에 따라 이해득실의 차이가 있겠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인력사용을 최소화하고 고부가가치의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추구하는 지식기반체제의 산업구조를 갖추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노동집약업종에서 기술집약업종으로 변해가는 현상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장시간의 근로를 요하는 업종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들은 앞으로 확대될 주5일 근무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 특히 초과근로의 단축은 일시적인 방법보다 노동절약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처방이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거나 인력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업무 및 시설자동화 또는 외주가공·아웃소싱 등 노동절약효과가 큰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본급 인상 등 임금체계개선 및 생산량 유연화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의 : 017-350-0155, E-mail : hrm@jalabor.com〉